

## 헬싱키 선언

### 정보화 시대의 도시간 대화를 지향하는 세계의 시장들

본 선언에 서명하는 도시는 정보 사회가 제공하는 혜택이 인종과 사회적 지위, 종교, 성별, 연령에 구별 없이 해당 도시의 시민은 물론 전세계 공동체의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인식한다. 서명 도시는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약속을 구현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할 것이며, 5 대륙의 모든 대도시들이 도시간 대화에 참여하여 이 뜻깊은 기획에 동참하기를 권유하는 바이다.

서명한 도시는 다음 원칙에 동의한다.

- 도시는 지리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실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바로 이 실체로서의 도시 안에서 시민으로서 또한 소비자로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생활하고 일하며 직접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는 공정한 정보사회의 건설에 있어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다양한 사회 속에서 정보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다음의 가능성들을 제고할 수 있다.
  - 인간 노동과 삶의 질 향상
  - 고용의 기회 확충
  - 서비스와 진행절차 상의 질 향상과 비용-효과 관계 개선
  - 제반 행정의 민주주의적 시행 증대
  - 사회 경제와 지속 발전의 전망 향상

- 한 사회 내부에도 각 사회 사이에도 한쪽은 정보에 폭넓게 접근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극히 제한된 접근만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정보접근의 격차에서 오는 시민간, 사회간 분열을 피하고 사회 연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속에서 대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보사회의 서비스와 기술력의 점진적인 세계화 및 공조현상은 새로운 형태의 경영방식과 협력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 정보사회 건설의 초기 단계는 견습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각 도시간에 경험과 결론, 연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 세계의 도시간 대화는 도시 내부에서나 도시들 사이에서 정보의 특권계층과 소외계층의 간에 격차를 줄이는데 공헌함으로써 지구 전체의 정보사회의 발전을 향한 지극히 소중한 기획이 될 것이다.
- 세계의 도시간 대화는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물론 국제사회 수준에서도 도시와 민간분야 사이의 투명한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혁신적인 장치를 제공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서명도시들은 아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인간의 노동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와 진행절차 상의 질과 비용-효과 관계를 개선하며 아울러 지속 발전을 향한 실질적인 진척을 위해 정보사회의 과학기술을 도시 속에 적용할 것을 보장한다.

- 각 도시와 나라의 법률, 전통, 언어, 문화를 존중하는 동시에 민주적인 참여, 표현의 자유를 장려하고 전자정보 운영의 실제 적용에 있어 사생활의 존중을 보장함으로써 정보사회 발전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한다.
- 열악한 기술 상황, 대중들의 불충분한 정보 접근, 역량있는 인력의 부족현상 등은 많은 도시와 나라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보사회 구현에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지역사회에서는 물론 국제사회 수준에서도 정보사회로의 발전과 견습과정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도시 사이의 경험과 결과, 연수를 공유토록 장려한다.
- 세번째 밀레니엄 시대의 정보사회 구현을 향한 열정과 결실의 기획인 세계 도시간 대화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적용한다.
- 시민, 공동체, 도시,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의 민간분야 등 제분야의 공익을 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본 기획과 유사한 시도들, 국제 산업 교류와 같은 시도들과도 상호 협력한다.

### 서명 도시